

한진, 사내대학 졸업생 43명 배출

〈정석대학〉

정석대학 운영비·학비 전액 지원

한진그룹은 20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사내 기술대학인 정석대학의 제 1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강두석 정석대학 학장·이강웅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을 비롯해 졸업생 43명 및 가족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일반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과정에서 경영학과 23명·산업공학과 20명에게 학위를 수여해 총 4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석대학은 평생교육·우수인재 양성이라는 한진그룹의 기업 이념에 따라 지난 1988년 조중훈 창업주의 지시로 국내 최초 설립된 사내대학 한진산업대학을 모태로 한다.



제 17회 정석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가운데)이 졸업생 직원 가족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진그룹

2002년 95명의 첫 졸업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335명을 배출했으며 전신인 한진산업대학 졸업생 2429명을 포함해 모두 376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석대학은 일반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학

사학위(경영학과·산업공학과·항공시스템공학과)와 전문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항공시스템공학과) 등 4개 과정을 각각 2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정석대학 운영비 및 재학생 학비 전액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졸업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호봉 등급 및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될 경우 승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힘들었던 지난 날을 이겨내고 마침내 학위 수여라는 가치 있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준비된 자들에게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또다른 기회와 가능성임을 잊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당당히 임해 달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IME박람회'.

/뉴시스

한국관광공사 美·유럽 'MICE' 시장 공략

올림픽 성공·남북 화해 활용해 순회 설명회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해 3~4월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등 구미주 지역에서 한국 마이스(MICE)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의 머리글자를 따 이들을 통칭한다. 관광 서비스 분야 고부가 창출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관광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열기가 아직 뜨거운 가운데 국내 지역 컨벤션 부로와 MICE 업계 등과 함께 각종 국제회의의 학·협회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구미주 시장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국제회의의 총 997건을 개최해 국제협회연합(UAI) 집계 기준 세계 국제회의의 개최 건수 1위를 달성했으나 지난해 한반도 안보 위기로 신규 국제회의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남북한 화해 모드 등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회의의 핵심시장인 구미주 시장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오스트리아 빈(현지시간 20일)을 시작으로 벨기에 브뤼셀(22일), 미국 뉴욕(4월3일) 및 워싱턴(4월5일), 영국 런던(4월25일) 등 총 5개 지역에서 국제회의의 학·협회 등 마이스(MICE) 관련 업선된 바이어 22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평창올림픽과 한식 열풍을 잘 활용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이대목동병원 비만대사외과학회장에 이주호 교수

이대목동병원은 이주호 외과 교수(사진)가 지난 17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주호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은 "올해는 비만 수술의 보험 단계가 예고되었고 대사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해이기도 하다"며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수술의 질 관리를 통해 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도비만과 위암 수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



다. 또한 대한위암학회·대한비만학회·미국비만대사외과학회·미국내시경복강경외과학

회·국제비만수술연맹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009년 발족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대한외과학회의 세부 전문분과학회로서 대한외과학회 가입이 승인돼 명실상부 비만대사외과의 주무학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2015년 세계비만대사외과학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연맹회의(IFSO-AP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올해는 국제학회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를 대한비만학회와 공동주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비만대사외과 교과서와 진료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회·국제비만수술연맹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009년 발족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대한외과학회의 세부 전문분과학회로서 대한외과학회 가입이 승인돼 명실상부 비만대사외과의 주무학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2015년 세계비만대사외과학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연맹회의(IFSO-AP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올해는 국제학회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를 대한비만학회와 공동주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비만대사외과 교과서와 진료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1일(음 2월 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60년생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세요. 72년생 요즘 너무 지쳐있습니다. 84년생 지금의 매에는 이루어지지 어렵겠습니다. 96년생 북쪽 방향으로 찾아보면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61년생 때를 기다려 보세요. 73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7년생 회사에서 사소한 시비를 조심하세요.



50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62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났습니다. 74년생 고민하는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86년생 남의 언쟁에 끼여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51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3년생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되니 주의하세요. 75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52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4년생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76년생 만사가 평온한 하루입니다. 88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에 특례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53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65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77년생 항상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89년생 위사람의 충고를 잘 들어 실행하세요.



54년생 물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했습니다. 66년생 고집내 내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78년생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90년생 마친내 크게 흥통할 운입니다.



55년생 나가면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7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79년생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득남할 것입니다. 91년생 여행은 길합니다.



56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8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80년생 큰 진전은 없습니다. 92년생 차를 몰고 과속하면 큰 불행을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57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9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1년생 안경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93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58년생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70년생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2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94년생 인간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59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71년생 대체로 원안합니다. 83년생 어려운 요건 속에서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95년생 큰 재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천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9			2	8				
	7	5	1				3	2
	3				9			
	2			3	7			8
3			4					6
		6	2				4	
		7					5	
1	6			9	8			
			1					4

				6				
		3	1		2	9		
	2		4		8			1
	1	8				6	7	
2				3				4
	3	4				2	8	
	8		2		9		3	
			2	3		1	4	
				7				

스도쿠 정답

9	7	5	1	2	8	3	6	4
6	3	1	2	9	8	4	7	5
8	2	4	8	1	3	6	5	7
5	8	2	4	6	7	9	1	3
1	6	3	4	9	8	2	7	5
7	4	8	9	6	5	1	3	2
2	9	6	7	5	1	8	4	3
3	8	9	2	4	7	5	1	6
4	1	8	6	3	2	9	7	5
8	9	6	2	5	1	4	7	3
7	5	1	9	8	4	6	3	2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四季 실패에서 배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수많은 관문이 있다.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학교 입학, 결혼, 출산, 중국에는 죽음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 그 관문 중의 하나인 대학입시이다.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지고 평생의 학벌이 되기도 한다. 냉정하다 못해 비정하게까지 보이는 시험을 치르고 대학진학에 마음을 졸이는 수험생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필자는 아무래도 시험을 망치거나 결국 대학입시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에게 마음이 쓰인다. 그 아픔이 꽤 클 것이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내딛는 첫 발부터 충격을 받을 그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실패는 누구나 만나는 삶의 한 형태이다. 좌절과 아픔을 지나고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이 거친다. 실패라는 게 때로는 배움을 주고 용기도 준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흔하게 쓰이는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있다. 반 접착의 상태에서 몇 번이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어 어느 곳에서나 유용하게 쓰인다. 포스트잇을 만든 회사는 처음부터 그런 제품을 기획했던 게 아니었다. 한 연구원이 잘 달라붙는 접착제를 만들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그런데 실험결과 나온 제품은 의도와는 다르게 접착력이 좋지 않았다. 조금만 힘을 가해도 떨어져 버려서 접착제로서는 실패한 셈이었다. 결국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실패한 기획으로만 남았다. 어느 날 동료직원이 찬송가에 페이지를 표시할 방법을 찾다가 떼기 된 접착제를 보게 되었다.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고 찬송가책이 찢어지지 않아 아주 좋았다. 상사에게 보고서를 낼 때도 사용하면서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되었다. 실패가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패에만 머물면 안 될 일이다. 그 상황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도약대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맛집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식당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레시피가 있다. 흔히 비법이라고 부르는, 며느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요리법이다. 두꺼운 공책이 너털너털해지도록 기록하면서 비법을 찾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수십 수만 번의 실패가 공책에 담겨있다. 실패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패가 있어서 사람은 더 성장한다는 것이다. 상처는 빨리 추스르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 선택이 된다.